



ㅣ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오로 <라파엘로, 종이와 캔버스에 불투명수채, 1515년.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바오로 사도께서 아테네의 공회장에서 외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다. 열정적인 사도의 몸짓과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냉소적인 청중의 태도가 대조적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그리스의 군신(軍神)인 아레스의상이 서 있고, 그 뒤로 이교의 신전이 보인다. 상황이 좋은 나쁜든 결과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신 사도의 정열이 잘 드러난다. 라파엘로는 이 작품을 비롯해 모두 열 점의 휘장을 시스티나 경당을 위해 그렸는데 현재 일곱점만 전해지고 있다.

† 오늘의 전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6-20 참조)

믿음은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깨우쳐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 정연한 설명을 통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힘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능력이 깃든 말씀을 입 밖에 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하느님 참 닮으셨네요!



황하철 안드레아 신부 | 4대리구 복음화담당

누군가로부터 “하느님 닮으셨네요!”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우선 이 말씀을 한 번 서로 주고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하느님 닮으셨네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느 복음(福音)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전교주일로 특별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날이니 더 잘 기도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은 아름답다”(로마 10,15)고 하는데, 우리의 발은 아직도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은 왜 일까요?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 집(天堂)에서 빛속을 거닌다”(이사 2,1-5)고 하는데, 우리 속에 어두운 면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보임은 왜 일까요? 전교를 한다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복음을 살고 전한다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살고 전해서인지는 아닐까요?

복음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하늘 나라의 복음’, ‘하느님의 복음’, 혹은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계획은 “한 처음”(요한 1,1) 세상 시작부터 있어온 것이기에 복음의 시작도 한 처음부터입니다. 그 때 우리

에게 전해진 첫 복음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입니다. 그러니 그 때에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복음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의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다”(창세 1,26,27)는 것이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복음화는 우선적으로 하느님 모상성(模像性)의 회복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당신의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으며, 당신을 오롯이 닮이라며 당신의 마지막 지상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2 8,20)

내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깨달음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영성(靈性)생활의 출발점은 아닐까요? 내가 하느님을 닮게 되면 닮은 그만큼 그분 집에 주인으로 살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천당(天堂) 혹은 천국(天國)이라 부르며 늘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기적(奇蹟)이라 부르며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용기를 내어 봅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며 기적을 깨닫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없다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해 줍시다. 우리에게 있는 그분의 모상성이 서로 기뻐하며 공명(共鳴)할 수 있도록, “**이래~ 보이, 하느님 참 닮으셨네요!**”라는 복음을 전해봅시다. 전교주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12년 전교주일 담화(요약)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전교주일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아 신앙의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립니다. 이는 더 큰 용기와 열정으로 만민 선교에 투신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의 의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교회론의 중심으로 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민음의 문』, 7항)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지녔던 사도적 열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 없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선포와 증언을 통하여 당시에 그들이 알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투신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은 개별 교회의 존재와 활동 전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시대에, 교회의 생활 방식과 사목 계획, 교구 조직도 선교에 맞추어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복음화를 위한 열정적인 투신을 가로막는 것은 대부분의 인류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묵말라하고 갈망하는 인류를, 생명수로 초대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마음의 갈증을 풀어 주시는 살아 계신 그리

스도를 만나면, 그러한 현존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분을 알려 모든 이가 이 기쁨을 체험하게 하려는 열망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활동과 개인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들은 자신이 복음화의 대상이고 동시에 복음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포의 핵심은 언제나 세상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포(케리그마)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며, 이 선물은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심지어 온 가족이 고국을 떠나 다른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교회의 보편 선교에 협력하는 교황청전교기구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활동으로, 복음 선포는 이웃을 돕는 발언이 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가 됩니다. 또한 오지에 교육 기회를 주고, 벽지에 의료 지원을 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소외된 이들을 받아들이며, 민족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종 갈등을 극복하며,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하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특히 선교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교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확고한 진전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복음화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모든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2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빛과 소금 - 평신도 신앙 칼럼

신비한 사랑

정표년 세실리아

최근에 더위에 지친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다. 딸 엘리사벳이 둘째를 출산한 것이다. 배불러 힘들어 보이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귀여운 천사를 만날 생각에 지난 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제왕절개술로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새 생명! 며칠은 눈도 안 뜨고(아직 뱃속인줄 아는자...) 움직임도 아주 작았다. 그럼에도 이상도 하지, 이 작은 생명에게 다가가는 설레는 할미의 사랑은.... 마냥 이쁘다. 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비 그 자체다.



우리네 어버이들도 우리를 이토록 극진히 사랑하셨으리라는 생각에 울컥 목이 맨다. 부모님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맘을 어린 생명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된다. 철이 들기 전에 결혼하고 좀 어린나이에 첫 아이를 낳아 어찌할 줄 몰라 힘들 때마다 아이랑 함께 울곤 했다는 어미도 둘째와의 만남에는 각별한 애정이 묻어난다. 손주 형제는 띠동갑이라 터울이 좀 긴 탓으로 큰 손주가 갑자기 사랑을 빼앗겨 안하던 짓을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온 가족의 관심은 어린 생명에게 쏠린다.

예방접종을 위해 함께 갔던 산부인과에서 만나는 모든 임산부들과 어린 천사들이 하나 같이 사랑스럽다. 아이 키우기가 아무리 힘들고 벅차도 가임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기들을 출산하고 키울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으신 주님! 세상과 만나는 모든 새 생명들이 큰 탈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으로 세상을 채워준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에게도 사랑 듬뿍 주소서.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주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신비함을 잘 알게 해 주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정표년**

금주의 성인

‘평화의 사도’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0월 22일)

가톨릭 사상 최단기간인 사후 6년 1개월 만에 ‘복자(福者)’가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천주교회뿐 아니라 20세기 국제사회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1920년 5월 18일 폴란드의 작은 마을 바도비체에서 태어나신 교황님의 본래 이름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고생을 많이 하신 교황님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946년에 사제서품을 받으신 교황님은 크라쿠프 대교구장으로 봉직하시던 1978년 10월 16일 만 58세의 젊은 나이로 제264대 교황에 선출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27년간 교황직에 20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시며 130여 개 나라를 방문 하셨습니다. 1989년에는 당시 개방을 추진하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접견하시어 냉전 종식에 힘을 실으셨고 고국 폴란드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종교 간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셨으며, 가톨릭교회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를 입은 종파와 나라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하셨습니다. 1984년 첫 방한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땅에 입을 맞추시고, “벗이 먼 데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셨던 교황님께서는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에 대한 시성식을 집전하시고 대구에 오셔서 주교좌 계산성당과 성모당을 방문하셨으며, 시민운동장에서 6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대회와 사제서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1981년 암살자의 총에 맞아 돌아가실 뻔 하셨습니다. 총탄이 기적적으로 주요 장기를 피하는 바람에 겨우 회복되신 교황님께서는 암살자가 갇혀 있는 감옥에 직접 찾아가시어 당신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말년에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지난 2005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남기고 선종하셨습니다. 대구주보

■ 신앙의 해 개막미사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자의교서 ‘믿음의 문’을 통해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다. 교구에서는 10월 11일(목) 오전 11시 계산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신앙의 해 개막미사를 봉헌하였고, 각 본당에서는 본당 미사를 통해 개막하였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강론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 신앙의 해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 교구장 대주교님,
구미 불산누출사고 대책본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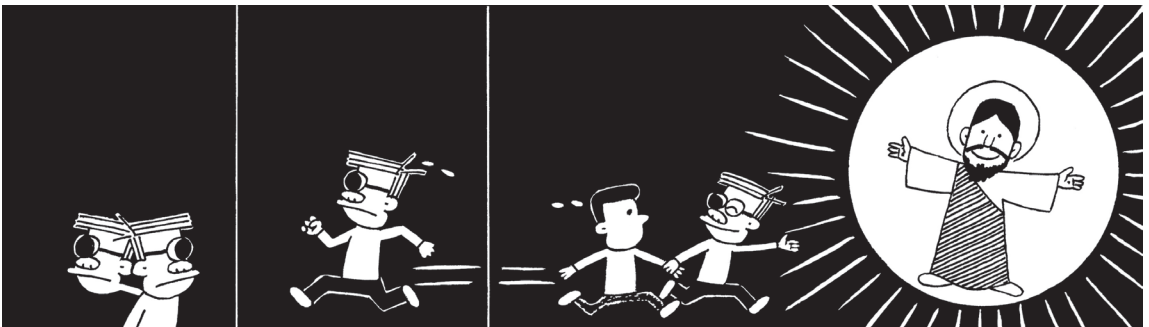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4일(일) 선산성당 50주년 기념미사를 거행하신 뒤, 5대리구 주교대리 김철재(바오로) 신부와 사목국장 곽종식(대전 안드레아) 신부와 함께 구미 불산누출사고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사고지역을 둘러보셨다.

■ 교구 일정 ■

- ▶ 2012년 본당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_ 일시: 10.21.(일) 10:00
_ 장소: 대구가톨릭 신학대학
성김대건기념관
- ▶ ME 만남의 집 축복미사 및
대구 ME 33주년
_ 일시: 10.27.(토) 16:00, ME 회관
- ▶ 제2차 교구 시노드 폐막미사
_ 일시: 10.28.(일) 13:30, 성김대건기념관

빛 속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섭리기도모임 (미혼여성)

일시: 10.28(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피정

기간: 11.17(토)~18(일)
장소: 청통수련원
마감: 10.29(월)까지, 선착순: 90명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104차 선택 주말

기간: 11.9(금)~11(일), 꾸르실로 교육관
대상: 미혼 남녀신자, 예비자(50명)
마감: 10.8(월)~11.2(금)
문의: 이상호 사도요한, (010)4403-0265
<http://cafe.daum.net/daeguchoice>

젊은이 영신수련 침묵 피정

기간: 10.26(금) 20:00~28(일) 15:00
장소: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안동 본원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신청: (010)5517-8833 (2만 5천원)
문의: 313-3431 / (010)8519-3431

예수성심 조이플스테이

기간: 11.17(토)~18(일)

주제: 아름다운 선택
대상: 만 18세~미혼 여성
신청: (010)9056-9005
하반기 젊은이 성소식별 피정
기간: 11.10(토)~11(일) 1박 2일
장소: 대구 툇짱포교베네딕도수녀회

교육 | 모집

2013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모집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0.25(목)~11.22(목)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참조
제1회 가정성화를 위한 성체거동

일시: 10.28(일) 10:00
장소: 어농성지~단내성가정성지
미사: 수원교구 단내성가정성지 15:00
문의: 단내성지, (031)633-9531

성 음악교실 1기 학생 모집

첫모임: 11.11(일) 14:00
과목: 그레고리안 성가
강사: 박대중 신부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젊은이모임 옛 멤버들을 초대합니다
(70년 후반~80년 초) 범어동에서 활동 하였던 성모기사회 옛 멤버를 초대
장소: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의: 박상규(마리아교보) 신부
(010)5380-8615

순교자현양회(서울대교구) 일본성지순례

일자: 11.15(목), 다른날짜 전화문의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등
해설·강의: 김길수 교수님
회비: 56만 9천 원 (4박 5일)
문의: (02)318-7202

충주성모학교 (시각장애) 학생 모집

대상: 시각장애인 유·초·중고 재학전공
지원: 순회교육 및 영유아를 위한 교육
특전: 장학혜택, 보조공학 기기지원
문의: (043)852-1374, 연중수시상담
<http://chungjusem.sc.kr>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기간: 2013.1.5(토)~2.16(토)(6주)
장소: 마리아의아들 팍상안 수도원
문의: (031)207-4982 대상: 초4~중2
주최: 천주교마리아의아들수도회
<http://blog.naver.com/cficengcamp>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10월 22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2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10월 22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10월 23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24일(수) 오후 7시	김천황금성당
바느섬성기도회 월례미사	10월 25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25일(목) 오후 7시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7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한수위!
천년의미소 미술학원
CHUN NYUN UI MISO ART INSTITUTE
중등부/고등부 입시전문
언제나 내자녀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명덕점 431-5005 수성점 741-3506
원장 이 해 록 (도미니코)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주|유|소
전와 한통화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강북행복을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 아파트와
화성 센트럴파크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 (053)323-2875, 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나래정형외과
발, 발목질환수술/골다공증/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박성기(리노)
TBC 방송국 옆 두산오거리방면
☎ (053)241-8275

와우이비인후과
수술 | 중이염, 비염, 축농증
전문 | 코골이, 편도선 수술
귀 전문클리닉, 보청기 상담, 장애진단
원장/전문의 이영호(바오로)
(전, 가톨릭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하철 1호선 성당역 1번 출구
☎ 654-2052 (서부정류장 네거리 LG전자 옆)

신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정운(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성동(리노)
www.linoclinic.com ☎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제2차 교구 시노드 폐막미사

일시: 10.28(일) 13:3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행사 | 모임

우성공원 위령미사

일시: 11.2(금) 9:30 출발

신청: 10.28(일)까지

참가비: 1만 5천원 (교통, 중식비 포함)

문의: 대봉성당, 423-1313

2012년 성령쇄신 추계 대구대회

일시: 10.27(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강사: 차동엽 신부, 대상: 일반

문의: (054)954-0951

제9회 평화방송 독서감상문 공모

응모대상: 초등학교 및 학부모, 중학생

제출마감: 10.31(수)

문의: (02)2270-2223

<http://www.pbc.co.kr> 참조

교육 | 모집

뿌에리칸도레스 합창단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기부 특강

내용: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특강

(공문 '천대교 2012-0125' 참고)

대상: 본당단체 (자모회 등)

유치원 (학부모 대상)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제4회 성경암송발표대회

일시: 11.24(토) 12:30~18:00(예정)

자격: 예선을 거친 후 본당 신부님의 추천

신청: 10.20(토)~30(화), 선착순: 80명

<http://cafe.daum.net/biap>

13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23(화) 10:30

(설명회 시 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13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모집

접수기간: 10.29(월)~11.9(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칭찬기술(이수남): 10.22(월) 14:00

제대·사범꽃꽃이: 11.2 (금) 11:00

명상체조: 11.2(금) 14:00

천연화장품: 11.8(목) 12:30

문의 및 신청: 254-6115

새빛학교 기초반 모집

한글반: 매주 월, 수, 금 10:00

대상: 한글쓰기에 자신없는 성인

성인ABC영어: 매주 화, 목 13:00

문의: 476-3100 (교대역)

행복한 영화읽기 미디어교육

기간: 10.23(화)부터 8주 14:00~16:00

장소: 바오로딸 서원 (공평동)

내용: 영화 읽기, 포럼과 자아성장

회비: 8만 원 (요일, 시간조율가능)

문의: (010)2658-5185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 대

금,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토폴엔팅

가톨릭요셉발건강화 강좌(발은제2의심장)

일시: 매주 토 14:00~16:00 (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 10만원)

<http://www.footfather.com>

채용

푸른평화 상인생협 실무자 모집

대상: 여1명(45세미만), 수동운전가능자

서류: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문의: 632-2148

안내

교구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재훈, 윤종길 가브리엘

위령의 날 버스운행(군위묘원) 안내

일시: 11.2(금) 09:00

출발: 교구청 내 대간출판사앞 주차장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 원 (선착순)

예매기간: 10.22(월)~26(금)

준비물: 미사도구, 도시락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전화예매불가)

군위성당 자모회 국법판매합니다 (금액: 6천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전문: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

30년 전통의 전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돌침대

2인용 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네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춘호(레오)

최고의 원초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성전건립기금미련 및 바자회, 성모회·자모회 등 각종단체 기금모음

이경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분사 : (041)641-3838 대구지사 : (053)255-3836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사

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IC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오로) **958-0009**

명품을 만드는 SM 수맥흙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